

忠南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의 調査成果와 課題

이 홍 중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忠南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의 調査成果와 課題

이홍종(고려대학교)

I. 序言

1975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송국리유적에서 처음 보고된 송국리형 주거지는 그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거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주거형은 원형의 수혈을 파고 중앙에 타원형 토광을 설치한 후, 토광 내부 혹은 외부에 주공을 배치한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송국리형 주거지는 경기도 華城市 泉川里遺蹟을 제외하고는 충남 이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출토토기도 전기무문토기와는 다른 축약된 저부, 장란형의 배부, 동체부, 짧은 외반구연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송국리유적을 지표로 하는 이러한 유형이 남한 각지에서 알려짐에 따라 우리는 이를 송국리문화라 부르기도 한다. 송국리문화단계 설정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고고학연구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전기무문토기단계에 속하는 여러 유적에서도 탄화미나 범씨흔적이 출토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인가의 농경이 이미 이전단계부터 존재하였으리라는 것은 추측 가능하지만, 이들 유적들은 수전농경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반면, 송국리유형에 속하는 유적들은 대부분 낮은 구릉에 위치하면서 구릉 사이의 곡간부가 발달된 지점을 농경지로 활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송국리유형의 유적들을 조사하는 것은 단지 주거지나 출토유물만이 아니라 주변 지형과 연계된 생업활동 측면에 대한 조사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전유적은 구릉부에 조성된 농경지와는 달리, 퇴적 조건상 발굴조사가 불가능할지라도 유적의 범위는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II. 지역성과 주거형에 대한 인식

충남지역은 동에서 서로 차령산맥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교류는 자연히 서해안지역을 따라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령산맥의 서쪽 끝에 위치한 보령지역이 바로 차령산맥의 북과 남을 연결하는 교류상의 루트에 해당되지만, 자연 지형상 독립된 구릉부나 넓은 곡부가 그다지 발달되지는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송국리문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보령지역을 중간지점으로 따로이 설정하고, 차령산맥의 북과 남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도면 1). 물론, 각 지역별로도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보다 세분화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북부지역 : 차령산맥 북부지역(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예산, 청양)

서안지역 : 서안 해안지역(보령)

남부지역 : 차령산맥 남부지역(서천, 부여, 논산, 금산, 공주, 연기, 대전)

필자는 송국리형주거지를 평면형에 따라 I 형과 II 형으로 대분하고, 각각을 다시 7가지로 세분하였으나(표 1), 본고에서는 문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했던 d형은 제외하고자 한다.

<표 1> 송국리형 주거형 분류안

	I				II			
	a	b	c	d	a	b	c	d
1								
2								

<표 2> 권역별 주거형의 개체수

지역	I 형						II 형					
	a1	a2	b1	b2	c1	c2	a1	a2	b1	b2	c1	c2
북부지역	15	1	1				4	7	1		3	
서안지역	48	4	1			3	50	20	2	1	3	6
남부지역	12				3		69	13	2	1	2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된 주거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것은 I a1, II a1, II a2型이다. 이 중에서 북부지역은 I a가 우세한 반면, 남부지역은 II a가 압도적이고, 서안지역은 I a1과 II a1이 거의 대등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a1과 a2의 차별성은 주거평면의 크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상 4개의 기둥을 더 필요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 시기의 취락내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주거형의 지역차는 또한 출토토기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북부지역의 토기는 주로 직립구연의 용형토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남부지역은 전형적인 송국리형토기가 우세하고, 서안지역은 양 지역의 주된 토기가 모두 공반되면서, 재지성이 강한 휴암리식토기와 송국리식토기의 절충형인 관창리식토기가 새롭게 등장한다.

따라서 송국리형주거지를 조사할 때, 우선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각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주거지를 조사할 때, 송국리형주거지의 각 형식이 의미하는 바를 전체적인 문화 흐름속에서 이해하여야한다.

우선, I 형과 II 형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이다.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I 형과 II 형은 각기 지역적 기반이 다르다. I 형이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형계의 주거평면에 새로운 내부 구조를 채용하고는 있지만 전기무문토기의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II 형은 새롭게 등장한 평면 원형의 주거형으로 송국리형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전기계통인 I 형에서 II 형으로의 계기성이 인정되는 듯하다. 이 경우 송국리문화는 자생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국리유형의 문화가 의미하는 바와 충남 북부지역의 지리적 혹은 취락입지 등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북부지역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재지적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남부지역의 송국리문화가 서안지역을 따라 북상하여 절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면, 이는 처음부터 완성된 문화형태가 남부지역에 존재하였다는 즉, 재지문화와 전혀 충돌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필자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지역은 재지적인 것과 신 요소가 공존하면서 먼저 절충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이어서 점차 완

성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초기 일본의 彌生文化에서도 福岡縣 江辻遺蹟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형은 송국리형이지만 토기는 繩文的인 것과 외래적인 요소가 혼합된 刻目突帶文土器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彌生土器인 외반구연의 板付式土器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충남지역의 송국리문화는 서안지역인 보령지역에서 재지적인 요소와 결합, 절충되면서 점차 송국리형의 주거 혹은 토기로 완성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완성된 송국리유형은 점차 남하하여 충남 남부지역 혹은 전라도 해안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북부지역은 완성된 송국리문화의 간접적인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비록 주거형의 일부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토기면에서는 재지적 요소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충남지역 송국리문화의 흐름을 요약하면, 서안지역에서 처음 재지계와 접하면서 절충, 완성되고, 이들 문화의 경제적 활동에 적합한 지형이 많은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송국리문화의 환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재지집단이 강하게 작용했던 지역적 한계로 말미암아 주거, 토기 모두에서 재지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2. 한 유적내에서 a1과 a2형이 공존할 때, 그것이 시기차인지 아니면 취락내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역학관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면, 전체 취락내에서 a2형과 a1형의 비율 및 분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대규모 취락지가 발굴된 관창리 B구역의 98기 주거지 중, I 형이 32기, II 형이 66기인데, 대체적으로 I 형과 II 형의 공존시기 \Rightarrow II 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시기적인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 전체 지역에서 I a1형에 비해 I a2형은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II 형만 갖고 특징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관창리 B구역의 II a1과 II a2 형의 수는 34 : 15 이고, 평균 면적상으로 보면 15.5 : 35.6(m²)이다. 즉, 3.27 기 중 한 기가 대형 주거지인 셈이다. 이러한 수치를 각 지역별로 보면, 북부지역이 1.57, 서안지역이 3.5, 남부지역이 6.3기 중 1기가 된다. 관창리유적이 서안지역 평균치와 거의 같음을 볼 때, 이러한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취

락내 역학구도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짐작된다. 즉, 재지성이 강한 북부지역은 취락내 구도가 이전과 여전히 차이가 없는데 비해, 시간적인 관계가 비교적 명료한 서안지역과 남부지역은 취락내에서 주거지간의 위계가 일정하게 강화되는 수치를 보여준다. 참고로 송국리유적의 경우는 15의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취락내 a1과 a2의 배치관계에서도 증명된다. 관창리유적의 구릉을 3등분 했을 때, a2의 비율이 상단부는 54%, 중간부는 22%, 하단부는 전무하다(도면 2). 이러한 현상은 취락내 주거 배치도 위계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관계는 관창리나 송국리, 한성리와 같은 대규모 취락 가능성이 있는 유적에 한정될 것이고, 보통의 중소형 취락은 주변의 경제적 경관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각 지역의 평균 수치를 갖는 주거지가 집합하여 하나의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발굴 여건상 주변지역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도를 원용하지 말고 발굴자가 직접 세밀하게 주변의 지형도를 작성한다면 취락의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III. 건축구조상의 문제

송국리형 주거지를 조사할 때, 아마도 가장 큰 의문점은 어떠한 구조였을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다른 주거지들은 대부분 중앙에 노지가 위치하고, 벽면을 따라 주공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구조나 상면의 이용방법이 비교적 명료하다. 그러나 송국리형 주거지는 대부분 노지가 없고, 내부의 유물도 바닥면 보다 높은 흙갈색 부식토층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추정 복원한 모형들을 보면, 모두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만든 것이다. 송국리형 주거지에 왜 노지가 없을까하는 점에 대해서는, 집단 성원간의 결속 혹은 집단 단위의 소비형태인 야외 공동 노지, 온난한 기후, 이동용 화로, 계절적 주거지, 타원형 구덩이를 특수하게 노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라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송국리형 주

거지는 노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주거구조였기 때문에 고고자료로서 잔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송국리형주거지를 조사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주거 내부의 퇴적양상이다. 상당수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바닥면 보다 약 50cm 높은 지점에서 중앙의 타원형 토광을 향해 흙갈색 부식토층이 일직선 상으로 확인되고 유물 또한 이 층위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타원형 토광 주위에서 그 흔적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도면 3). 만약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퇴적된 것이라면 토광 위 부분까지 부식토층이 연결되어야할 것이다. 타원형 토광 주위에서 층위가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 토광 부분을 제외한 내부 전체에 어떠한 시설이 바닥면 보다 위쪽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층위에서 유물이 출토된다는 것은 그 시설이 바로 이 주거지의 床面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바닥면이나 토광 내부에서도 유물이 출토되는데, 주거지 사용 당시에는 床面 아래 부분이 빈 공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지는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주거 상면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약, 송국리형 주거지의 床面이 수혈 바닥면 보다 높은 곳에 평상과 같은 시설을 깔고 이용된 형태라면, 노지도 분명 이 床面に 모래함과 같은 시설로 설치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주거지 사용시에도 타고남은 재 등은 바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는 그 흔적이 남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 필자는 단지 필자가 내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조사에서 검토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한 토층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유물이 출토되는 흙갈색 부식토층에 대한 세밀한 관찰은 바로 상면 시설의 이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조사 방법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개 十자형의 토층을 남겨 놓고 바닥면까지 파는 방법으로 일관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층은 그대로 남기되, 나머지 부분은 층위별로 평면실측을 행하면서, 유물이 출토되는 부식토층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토양이나

유기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주변 경관에 대한 검토

송국리형 주거지는 대부분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지형은 폭이 좁은 곡부 혹은 저평지를 이루고 있어 그 경제적 기반이 저지대를 이용한 농경 즉, 수전농경을 주축으로 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를 보면, 주거지가 위치한 구릉부에 거의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물론, 도로공사 등 한정된 조사구역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표조사 단계부터 아예 조사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능성이 있는 곡부 혹은 저지대에 대한 시굴조사는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면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초기 농경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충남지역에서 조사된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된 구릉부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에 대한 검토를 행함으로서, 水田 농경지의 존재 가능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작 농경도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도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1. 농경지의 입지

농경의 입지조건은 환경, 기후, 기술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지금까지 농경의 입지적 환경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선사 시대에 한정하면 대개 6개의 유형이 설정될 수 있다.

(1) 전작지

- ① 산악·구릉형 : 개간 혹은 화전을 위주로 한 전작지이다. 예) 대부분의 지역에 해당되지만, 유적 확인이 어렵다.
- ② 하안 대지형 : 용수가 없는 사질성 토양이 강한 곳으로서 개간을 통해 전작지로 사용되어 왔다. 예) 미사리, 남강댐 수몰지구 유적 등

(2) 수전지

- ③ 곡부 분지형 : 작은 하천의 곡부 분지나 작은 호수의 습지가 대상이며, 아주 오랜 기간 도작 농경지로 선택되어 왔다. 예) 관창리 (도면 4, 5, 6 참조)
- ④ 계단형 : 낮은 구릉의 하단부로부터 저습지에 걸쳐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한 것으로 수전구획은 대개 작은 편이지만, 경사도의 정도에 따라 그 대소는 결정된다. 그리고 구획 형태는 등고선에 좌우되기 때문에 부정형이 많다. 예) 마전리, 무거동 (도면 7, 8, 9 참조)
- ⑤ 평지형 : 거의 경사가 없는 평탄 대지 위에 만들어진 수전지로서, 취배수의 문제상 소 구획한 것이 많다. 예) 지형상으로 볼 때 송국리유적, 궁남지유적 일부 (도면 10 참조)

각 유적 주변의 지형조건을 참고로 어떠한 형태의 농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충남지역 송국리형 주거유적의 농경형태(私案)

농경의 형태	유적명
산악·구릉형	천안 백석동, 천안 불당동, 천안 석곡리, 천안 대흥리, 천안 남판리, 아산 명암리, 서산 휴암리, 보령 관산리, 보령 연지리, 보령 주교리, 대전 구성동, 대전 대정동, 대전 노은동, 대전 궁동
하안 대지형	보령 평라리
곡부 분지형	천안 업성동, 천안 쌍룡동, 보령 관창리, 보령 소송리, 부여 합정리, 공주 산의리, 공주 안영리, 공주 장원리, 금산 수당리
계단형	아산 신범리, 보령 진죽리, 서천 오석리, 논산 마전리, 공주 귀산리
평지형	보령 죽청리, 서천 한성리, 서천 당정리, 부여 송국리

이러한 구분은 유적 주변 저지대의 수전 지형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곡부·분지형, 계단형, 평지형으로 분류된 유적들이라 하더라도 산악·구릉형과 같은 전작농경도 함께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면, 산악·구릉형이나 하안 대지형은 수전을 영위할만한 지형적 조건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들 유적들은 수전농경이 배제된 전작농경 위주의 생업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상 가장 쉽게 수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곡부나 구릉 하단부이지만,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도 거의 동시기에 수전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처음 단계부터 상당한 기술적 수준을 소유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평지형 수전은 수리관개시설만 완비된다면 다른 수전형에 비해 보다 넓은 면적을 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취락과 주변지형의 관계를 고려하면, 조사 한계상 평지형 수전 부분만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의 취락 분포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송국리형 주거유적이 조사되는 지역이라면 주변의 저지대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전에 대한 조사방법이 단순하면서도 난해하고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작층위와 수로 독 등의 미세한 차이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따라서 취락지를 조사할 때, 주변 곡부 혹은 구릉 하단부까지 조사범위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수전의 존재여부, 범위, 조사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일반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밭은 마전리유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경기의 논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산사면, 구릉부, 사질성 강한 하안 대지에 만들어진다. 논이나 하안대지에 만들어진 밭은 유구의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산사면, 구릉부의 밭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지가 입지한 구릉 사면부나 주변에 밭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릉부의 층위에 화전의 흔적(잘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불에 탄 재층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이 확인되는지를 우선 관찰하고, 가능성이 있는 층위에 대한 식물 규산체 분석을 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동시에 취락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토지 이용방법까지도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전작 가능성의 실례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들은 대부분 산사면이나 구릉 정상부 혹은 사면에 위치하는데, 그 배치관계를 유심히 관찰하면, 취락과 주변 토지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① 정상부나 사면부를 따라 취락이 형성된 경우 : 정상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면부에는 전혀 주거지를 배치하지 않고 간단한 저장공이나 불규칙한 시설물이 약간 존재하는 정도로 이곳을 경작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사면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단독 혹은 몇 기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경우 : 원래 거주 취락이 아닌 농경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가옥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들 가옥에서는 기본적인 토기류 외에 전작과 관련된 도구인 석부, 팽이, 석도, 지석, 조잡한 미제 석제품, 석촉 등의 도구가 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①과 같은 타입은 구릉이나 산사면 전체가 조사된 관창리유적 등 대부분의 유적 평면도 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오늘날의 농촌과 큰 차이가 없다. 저지대는 수전, 구릉부는 밭으로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토지이용 방법이다.

②와 같은 타입은 몇 유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관산리유적 : 관산리유적에서 조사된 송국리형 주거지는 단 1기이다. 주거 배치면에 있어서 시기가 다른 장방형 주거지들은 대형 주거지를 기준으로 모두 서쪽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송국리형 1기만이 동쪽 사면부에 위치한다. 유물은 토기류 외에 석부, 미제 석제품, 석촉 만이 출토되었다(도면 11, 12).

- 연지리유적 : 연지리 고분군을 조사하기 위해 산 사면 전체를 발굴하였지만 주거지는 동쪽 사면 하단부에서 단 1기만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류 외에 석부, 미제석제품, 석촉, 지석만이 출토되었다.

- 수당리유적 : 구릉 정상부에서 2기가 약 25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토기류 외에 석도편이 각 1점씩 출토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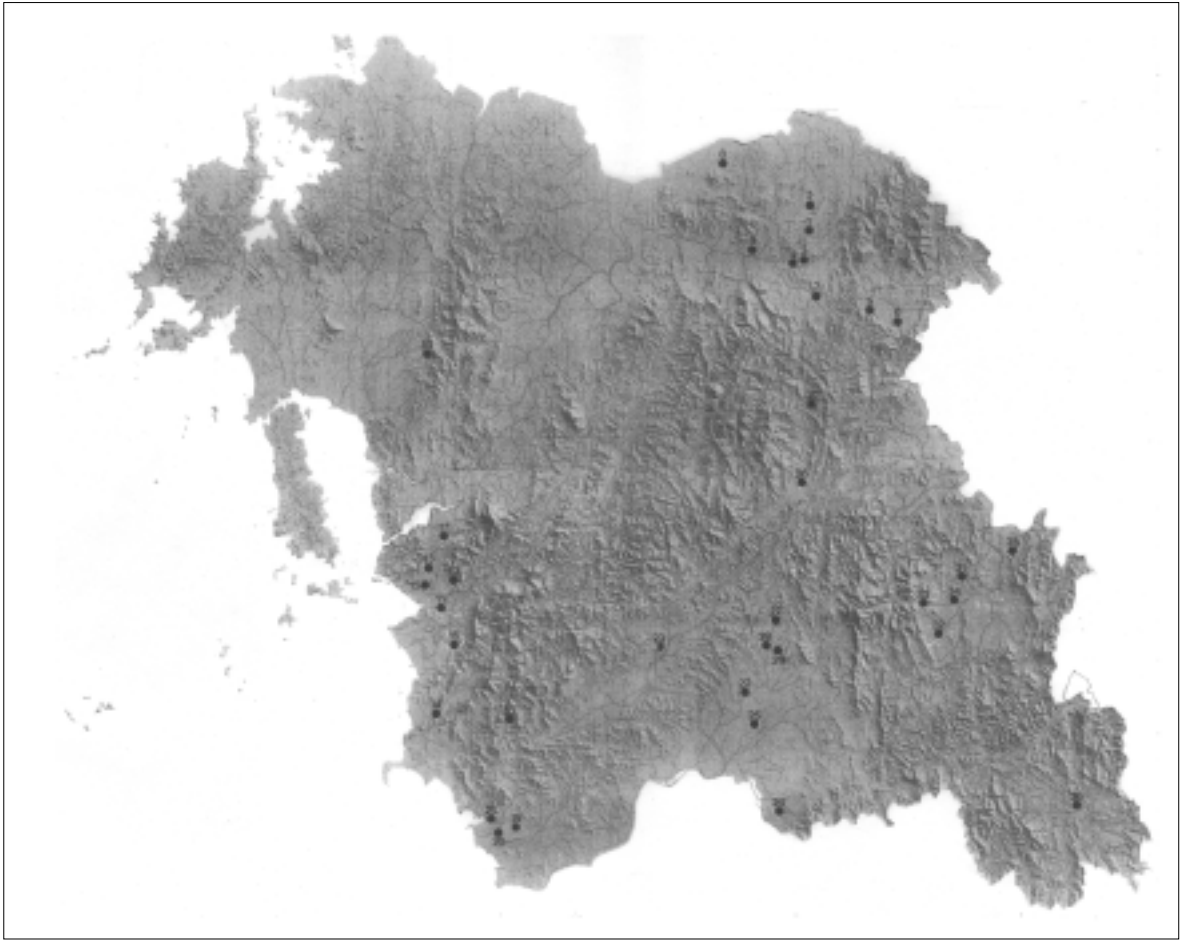
이 밖에 천안시 백석동유적, 보령 주교리유적 등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민족지학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동남 아시아 등 아시아 각 국에서 그 예가 알려져 있고, 취락지로부터 小屋까지의 거리도 4km 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유적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층위 확인과 분석에 의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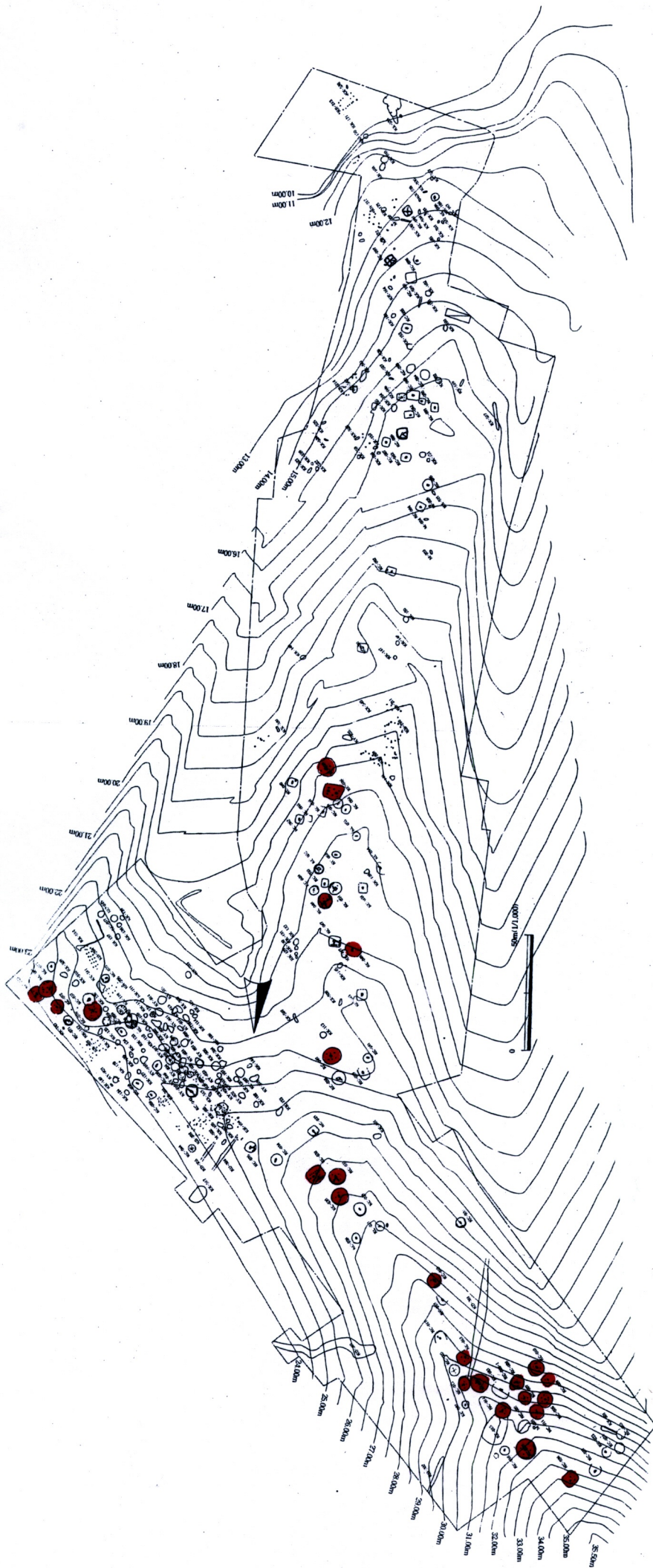
V. 結語 - 調査方法에 대한 課題 -

두서 없이 송국리형 주거지와 그와 관련된 필자의 견해를 간단하게나마 피력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 1) 송국리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송국리형 주거지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조사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 2) 건축구조상의 문제는 다른 형태의 주거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발굴자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 3) 경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송국리문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시기의 유적에 비해 비교적 취락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문화적 성격도 파악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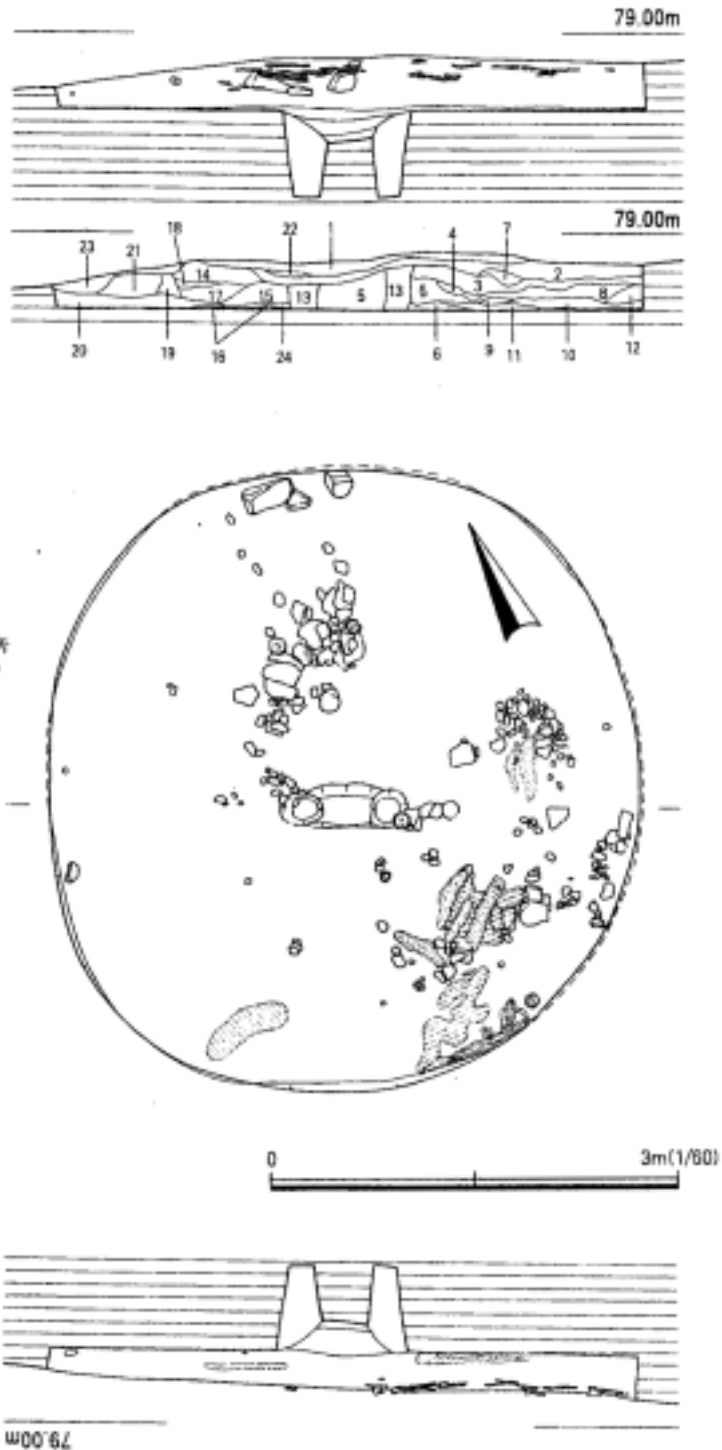


<도면 1> 충남지역 송국리형 주거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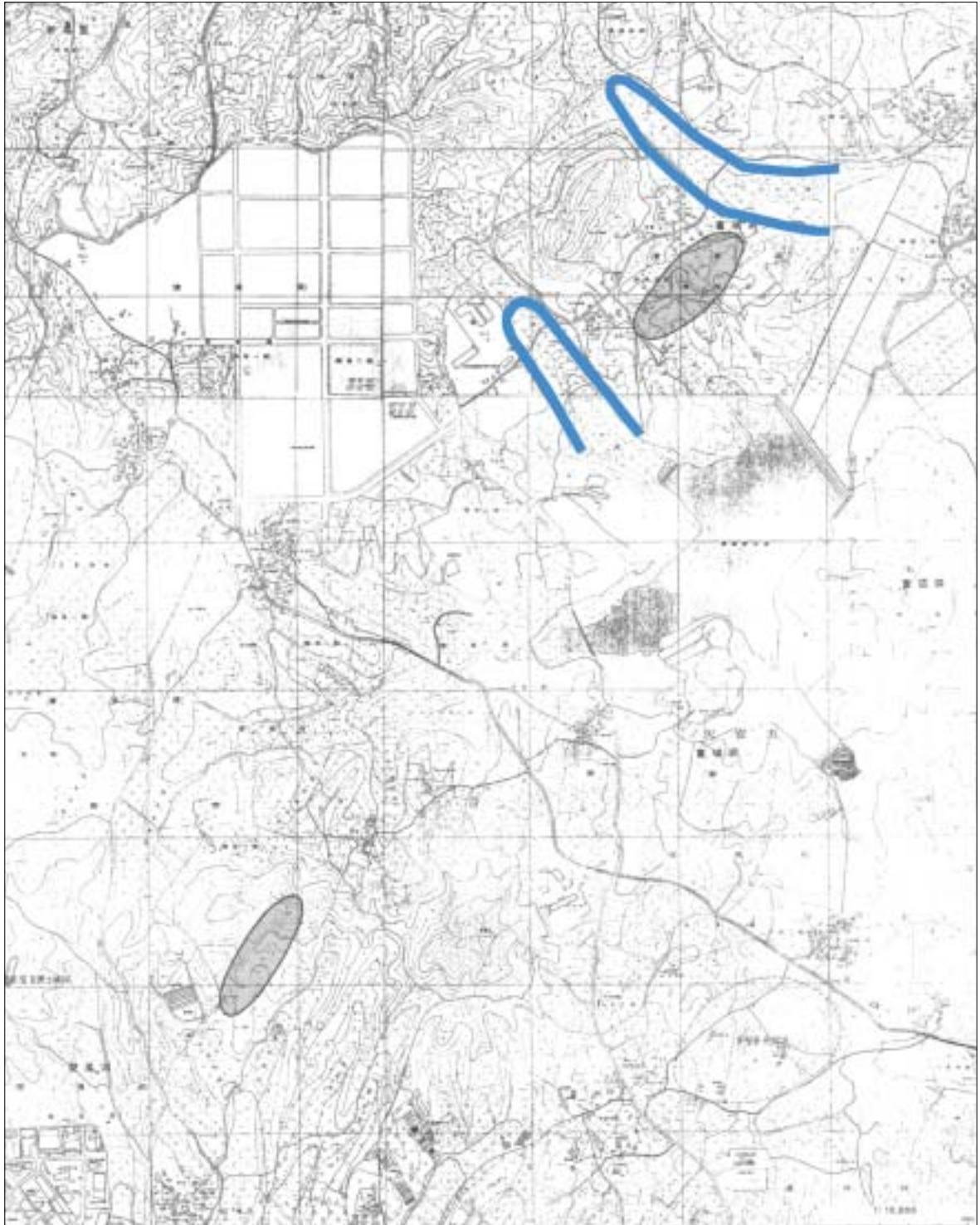


KC-001호

1. 명황갈색 점질토
2. 명황갈색 점질토
(1보다 짙음, 갈색 점질토 포함)
3. 연갈색 점질토
(16보다 어두움, 목탄 다량 포함)
4. 연녹색 점질토
(5보다 어두움, 목탄 다량 포함)
5. 연녹색 점질토
(20보다 어두움, 목탄 소량 포함)
6. 갈색 점질토
(10보다 어두움, 목탄 다량 포함)
7. 연녹색 점질토(4보다 밝음)
8. 연갈색 점질토(목탄 다량 포함)
9. 연갈색 점질토(8보다 어두움)
10. 갈색 점질토
(12보다 어두움, 목탄 소량 포함)
11. 연갈색 점질토(9보다 어두움)
12. 갈색 점질토
13. 연녹색 점질토(4보다 어두움)
14. 갈색 점질토(10보다 어두움)
15. 갈색 점질토(14보다 어두움)
16. 연갈색 점질토
(11보다 어두움, 목탄 다량 포함)
17. 갈색 점질토(15보다 어두움)
18. 연갈색 점질토(21보다 어두움, 연녹
갈색 점질토 포함, 목탄 소량 포함)
19. 연녹색 점질토
(가장 밝음, 목탄 소량 포함)
20. 연녹색 점질토
(23보다 어두움, 목탄 다량 포함)
21. 연갈색 점질토(16보다 어두움)
22. 연갈색 점질토
(18보다 어두움, 목탄 포함)
23. 연녹색 점질토(19보다 어두움)
24. 연갈색 점질토(22보다 어두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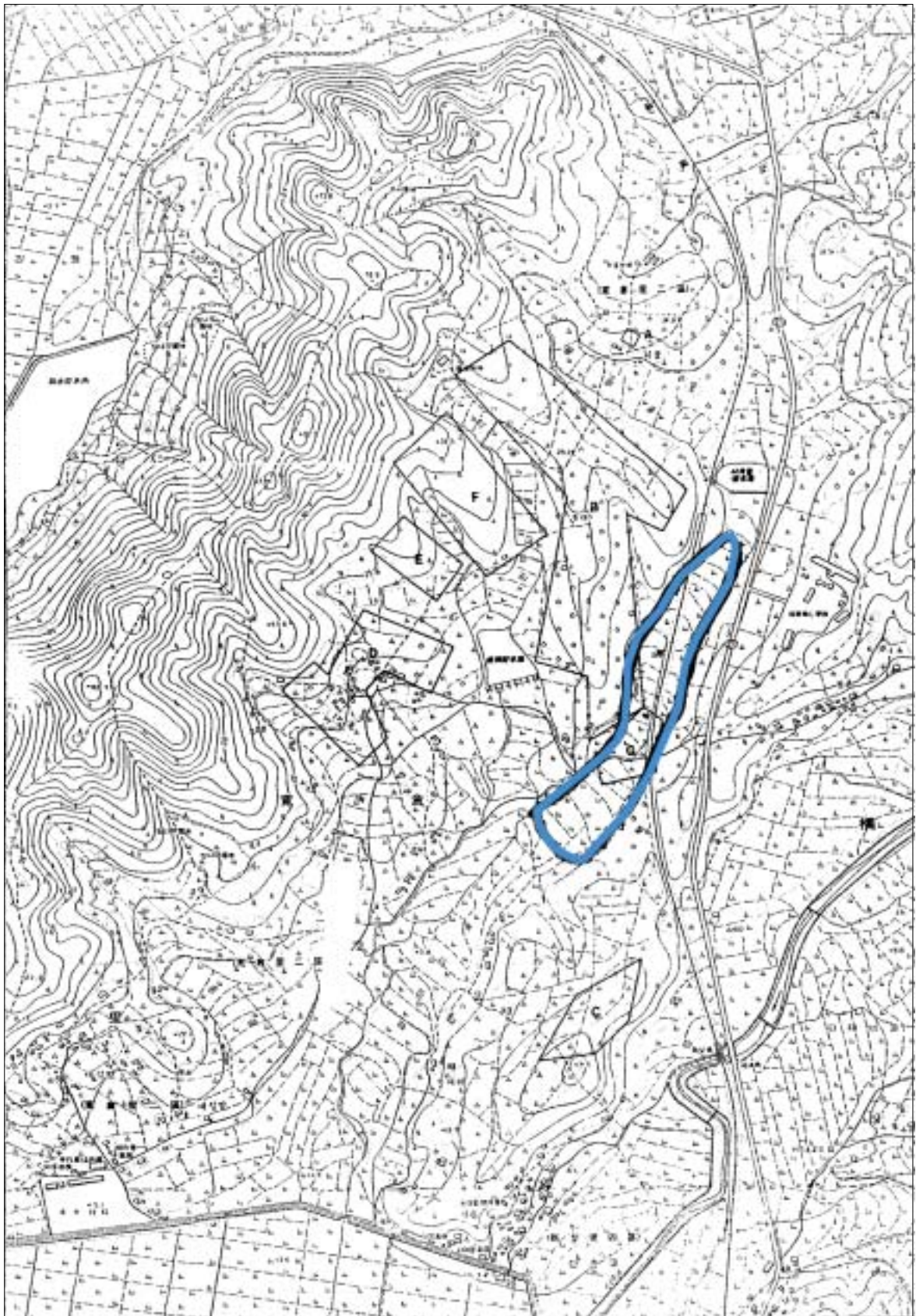
<도면 3> 대정동유적의 송국리형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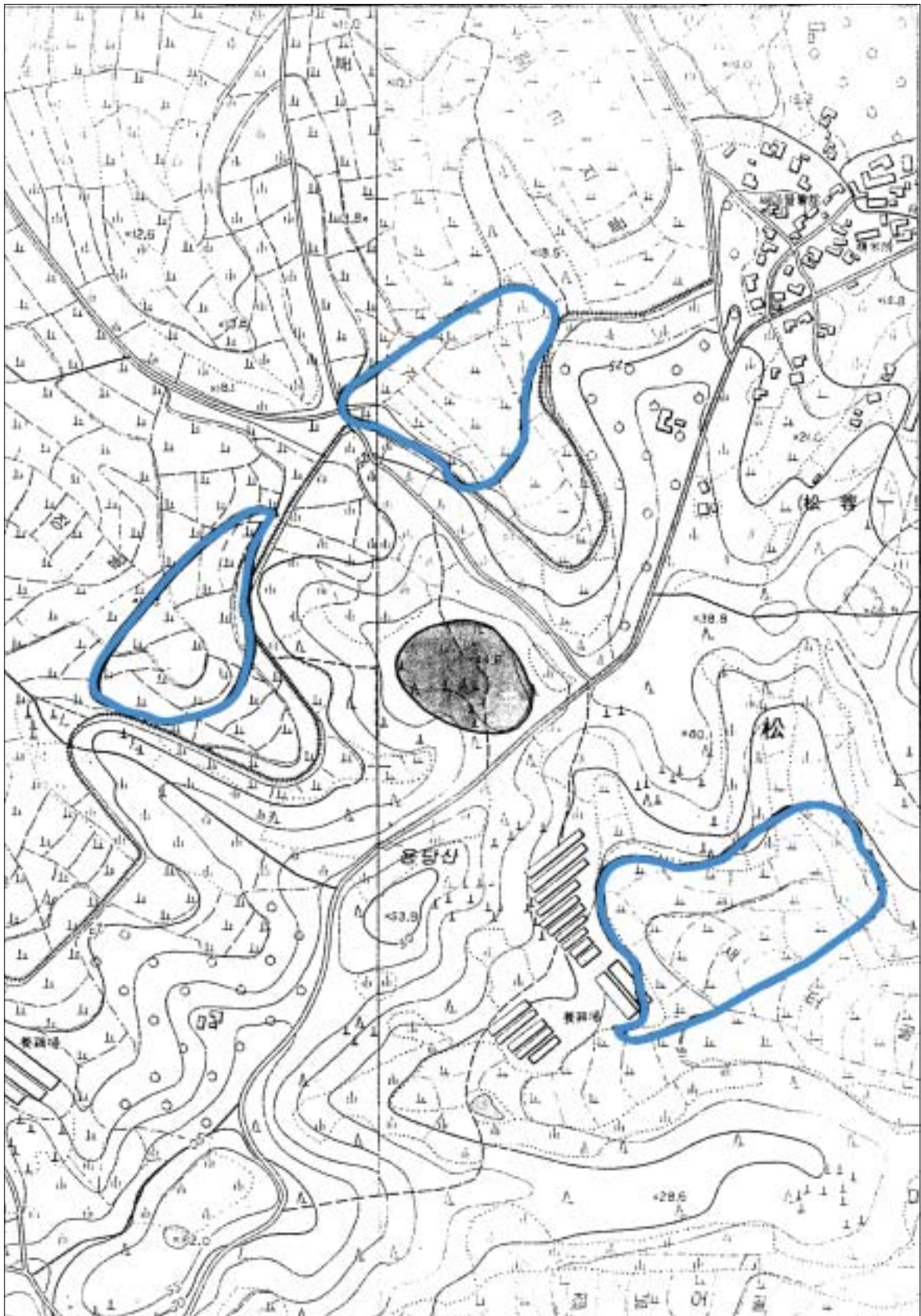
<도면 4> 곡부·분지형 수전의 지형(천안 업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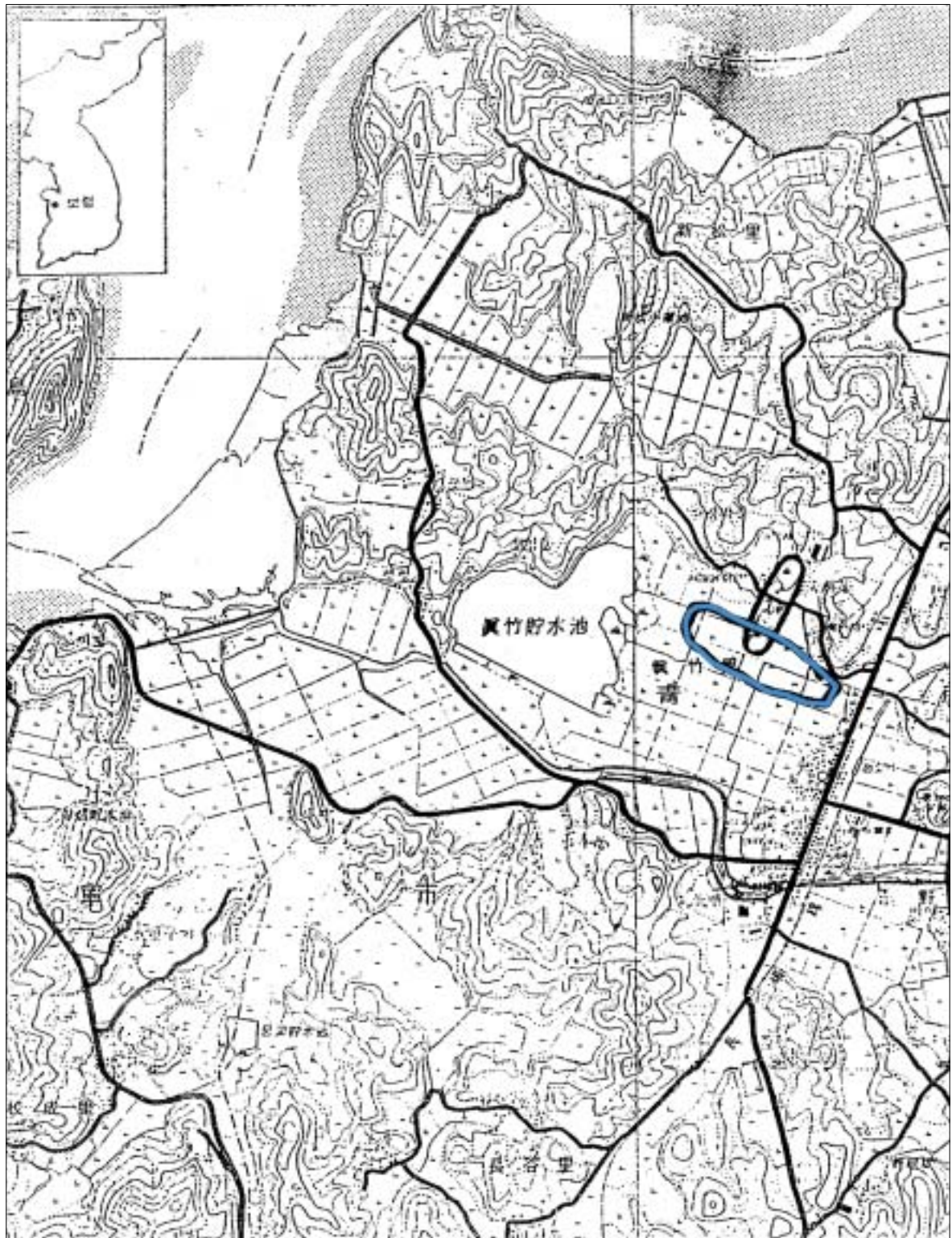
<도면 5> 곡부·분지형 수전의 지형(천안 쌍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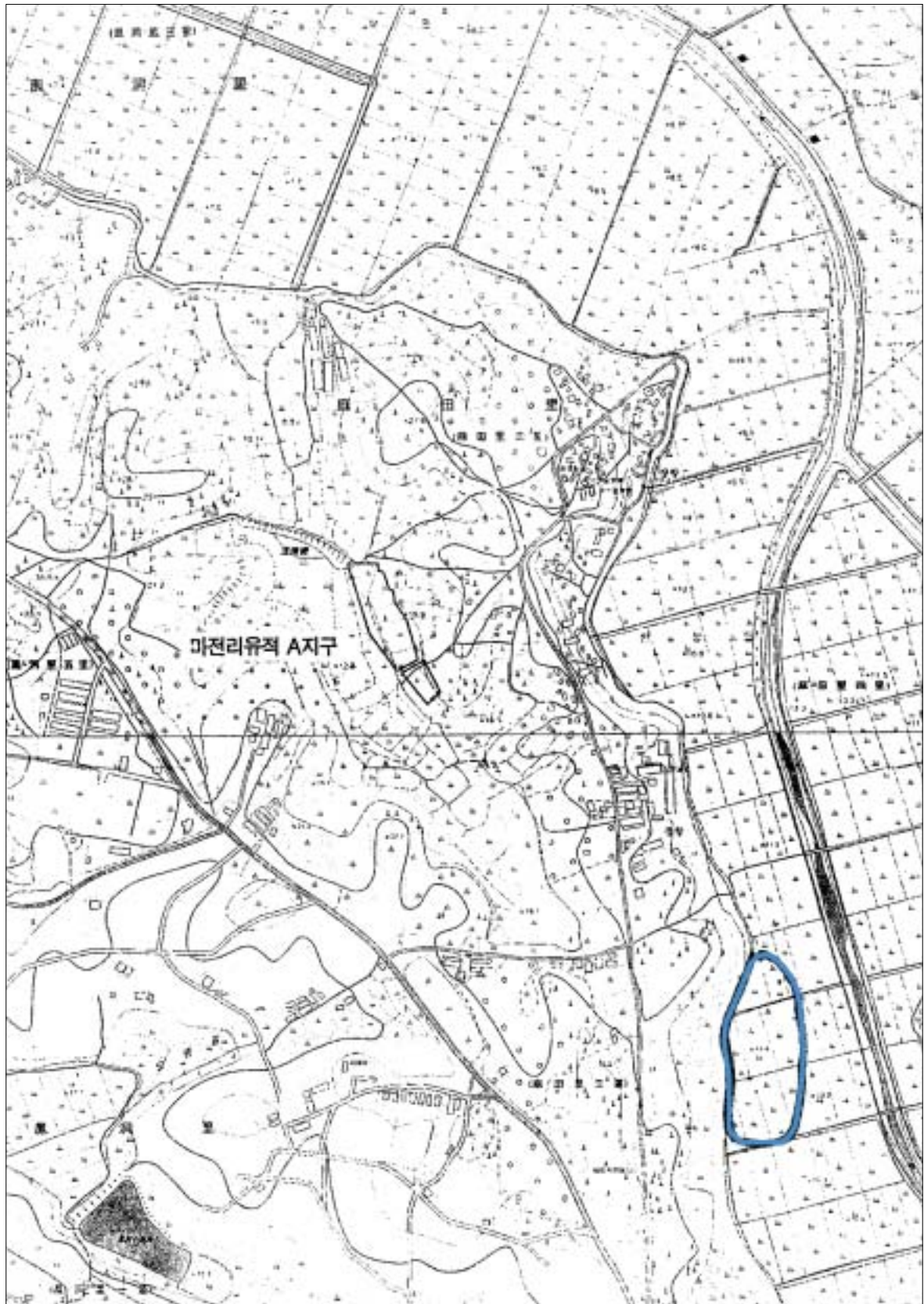
<도면 6> 곡부·분지형 수전의 지형(보령 관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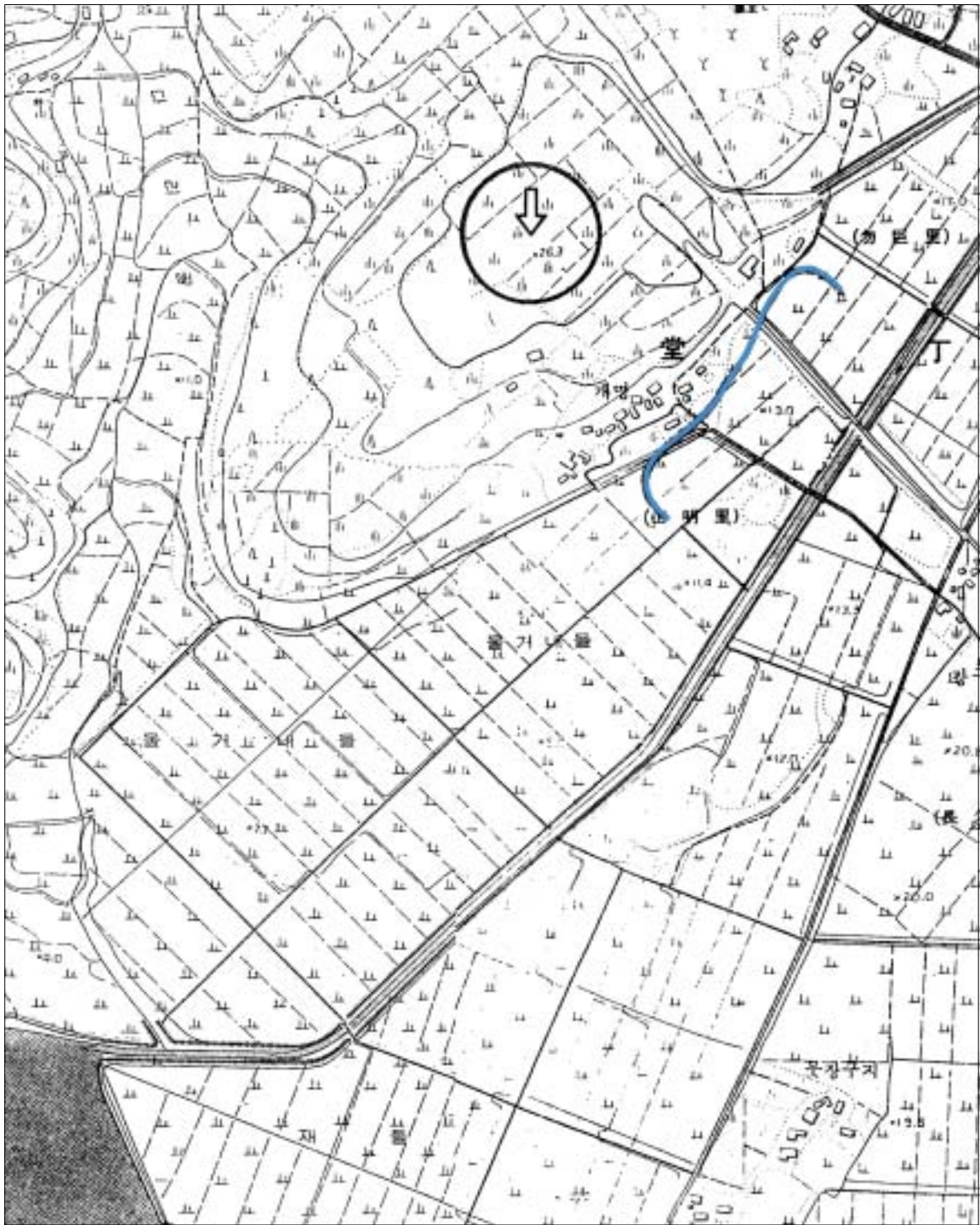
<도면 7> 계단형 수전의 지형(아산 신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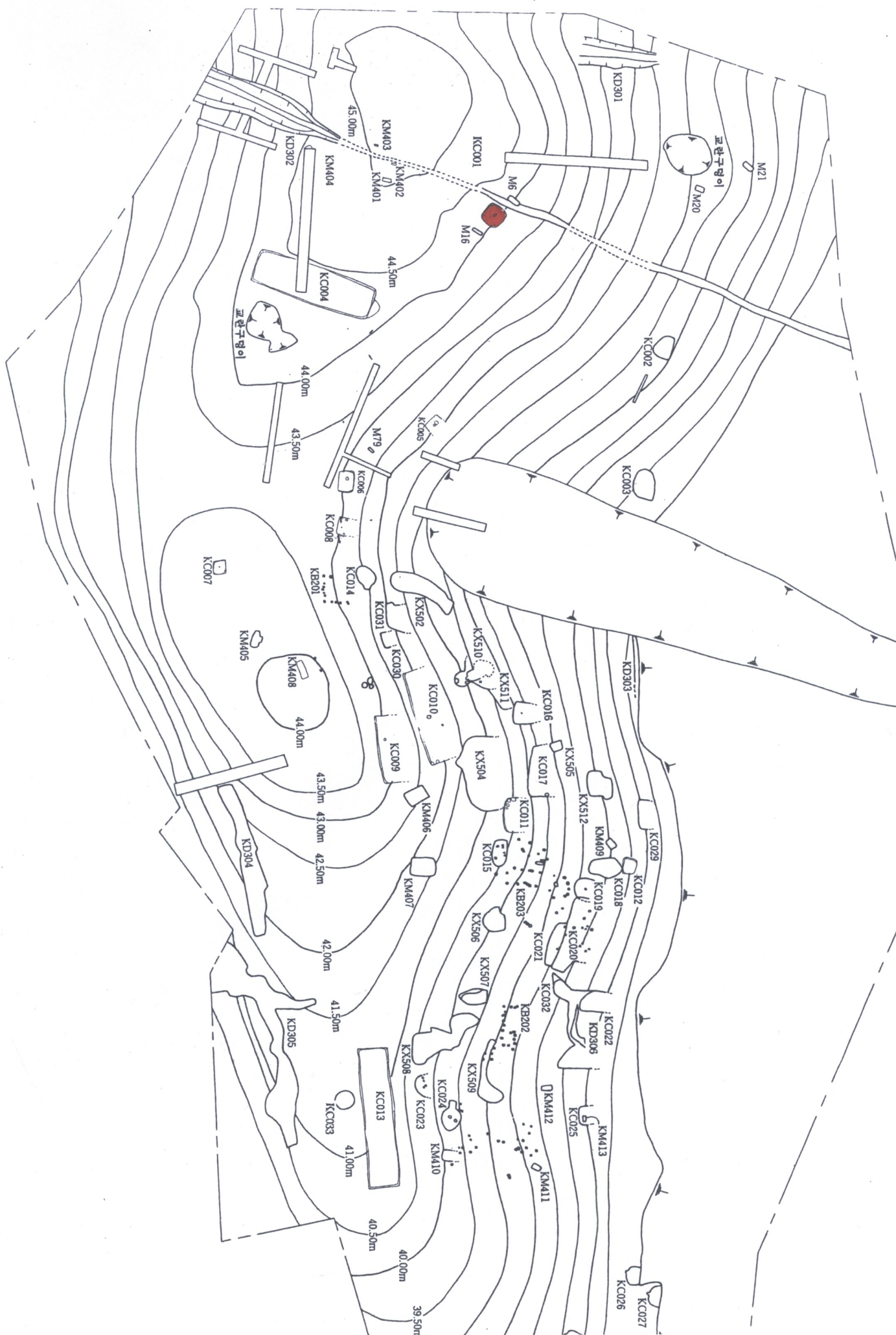
<도면 8> 계단형 수전의 지형(보령 진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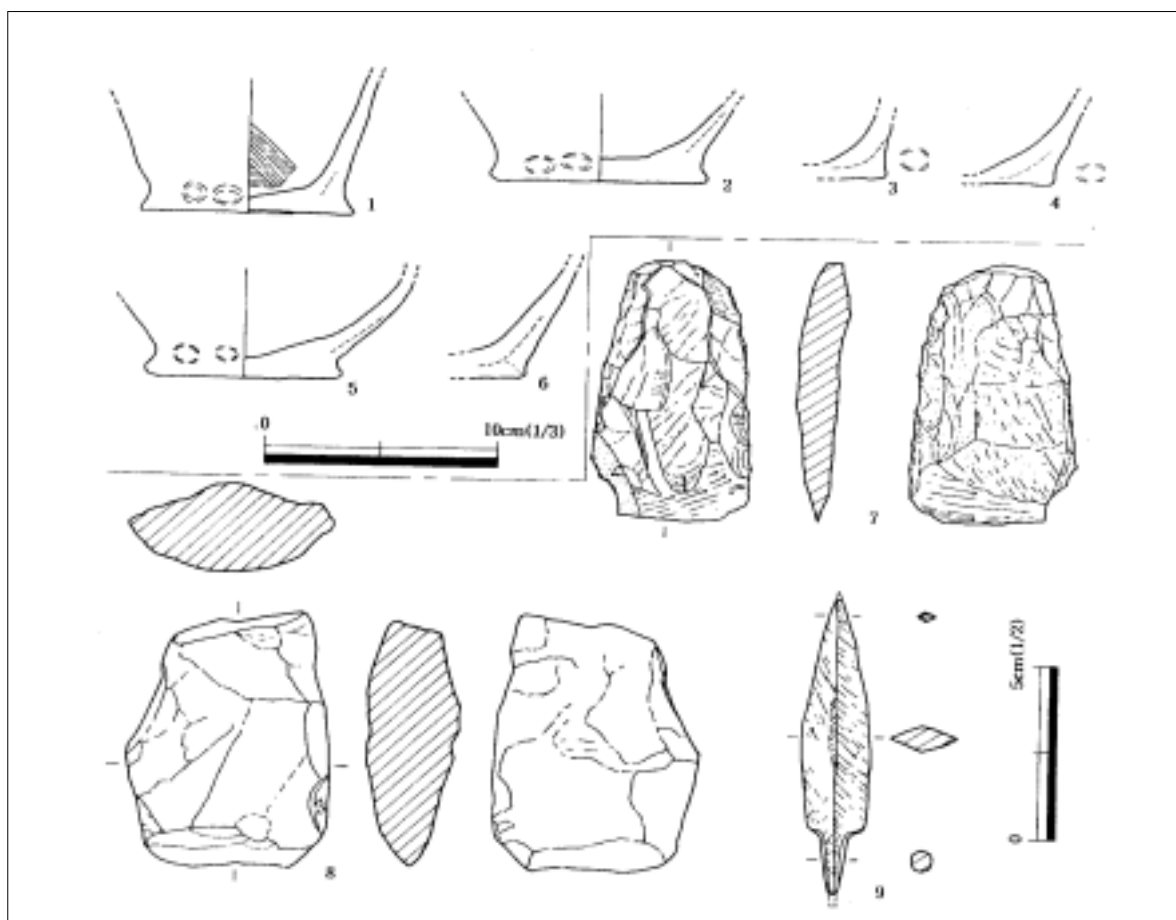


<도면 9> 계단형 수전의 지형(논산 마전리)



<도면 10> 평지형 수전의 지형(서천 당정리)





<도면 12> 관산리유적 송국리형 주거지 출토유물